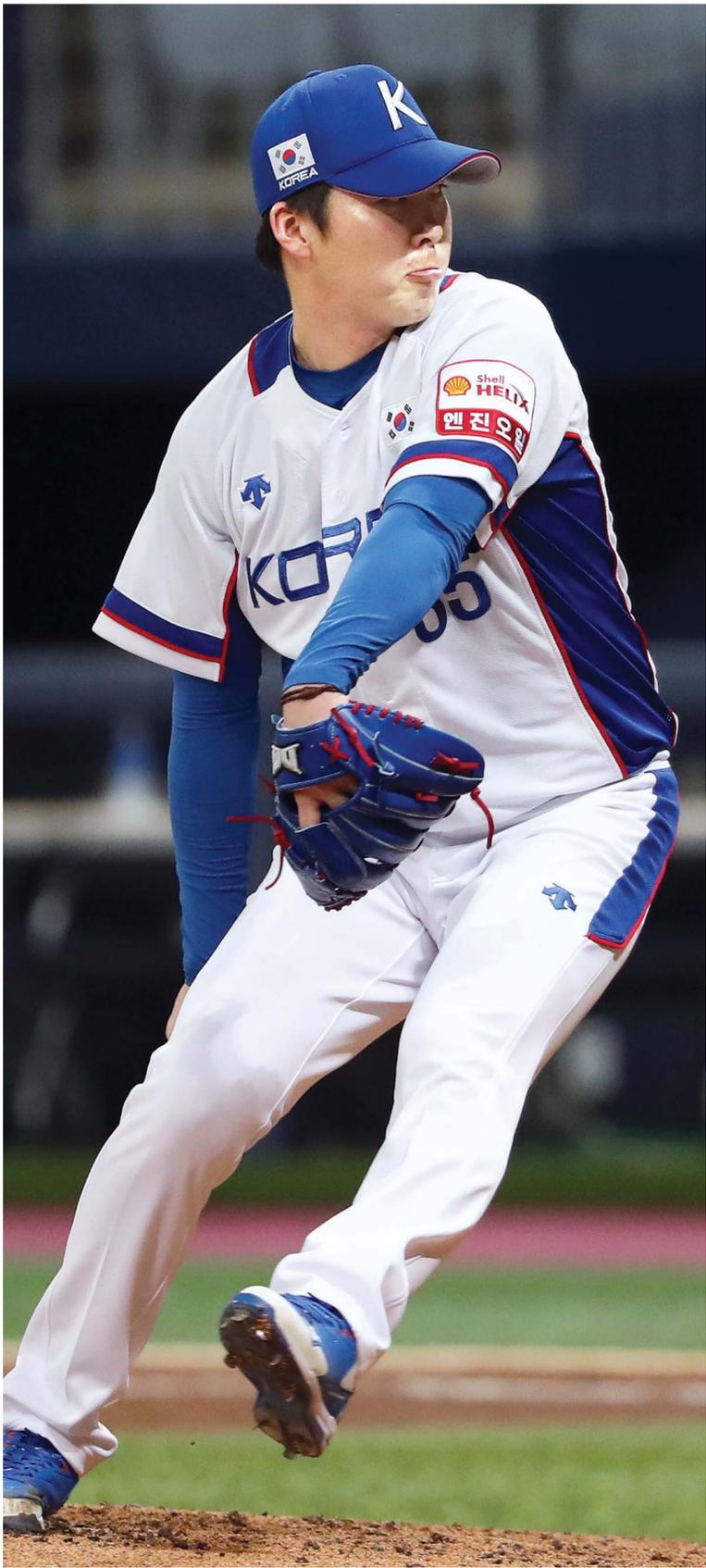


무보직 → 마무리 → 국가대표 ... KIA 문경찬의 '반전 드라마'



시즌 초 김윤동 부상으로 마무리...55이닝 1.31 방어율 1승 2패 24세이브
프리미어 12 대만전서 국가대표 데뷔...“뿌듯한 한해 보내 자신감 커졌다”

‘마무리에서 테크마크’까지 KIA 타이거즈 문경찬에게는 잊을 수 없는 2019시즌이었다. 문경찬은 지난 17일 끝난 2019 WBSC 프리미어 12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뛰었다. 단국대 재학 시절이었던 2014년 WBSC U-21 월드컵에 출전한 적은 있지만 한국 야구를 상징하는 선수들과 ‘국가대표’로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경찬은 “대학 때 대표팀에 갔던 것과 많이 달랐다. 이전 말대로 국가대표이고 그 때와 외달는 게 달랐다”며 “좋았다. 재미있었다. 도쿄돔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좋고 영광스러웠다”고 대표팀으로 보낸 한 달여의 시간을 돌아봤다. 대표팀 소집 초반 페이스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성적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왔다. 문경찬은 “잘했으면 할 말이 많겠지만 내가 잘 못한 것”이라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함께했다는 것

이 생각이 달라지는데 일조를 한 것 같다. 그 선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생각하니 좋았다”고 덧붙였다. KBO리그에서 손꼽는 선수들과 ‘동료’로 지내면서 문경찬은 야구 선수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처음 동료로 함께 한 선수들도 있었고 대표팀도 처음이었지만 이내 익숙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경찬은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했던 것 같다. 어색하지는 않았다”며 “원래 당황하지 않는 성격인데 대만전에서 (심판이)로진백(송진 가루 주머니)을 안 뺐을 때는 당황했다”고 웃었다. 대회 예선 3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문경찬은 대만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을 통해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0-6으로 뒤진 상황에서 9회초가 시작됐다. 그리고 문경찬이 마운드에 올라 로진백 교체를 요구했지만 심판이 고개를 저었다. 대표팀 주장 김현수의 항의에도 심판은 로진백 교체를 거부했다. 문경찬은 “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결과

가 좋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날 못했으니까 이야기 많이 안 하려고 했다. 못하고 하는 이야기는 핑계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시즌 전 문경찬은 특별한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불펜 투수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 처음 마무리 역할을 맡은 김윤동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문경찬의 시즌이 전개됐다. 마무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문경찬은 예상 외로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며 이내 ‘임시’를 떼고 팀의 마무리가 됐다. 54경기에 나온 문경찬은 55이닝을 1.31의 평균 자책점으로 틀어막고 1승 2패 24세이브를 기록했다. 자신감이 스피드까지 더해지면서 마무리 문경찬은 국가대표 타이틀도 얻었다. 문경찬은 “이제 공을 던지는 방법을 안 것 같다. 고척에서 첫 세이브 하고 나서 공을 던지는 법을 알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마무리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웃었다. 또 “올해 진짜 좋았다. 처음으로 뿌듯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며 “살면서 뭘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적이 없다. 내년에도 더 잘할 것이다. 올해보다 잘하면 가을잔치도 갈 것”이라며 더 발전된 2020 시즌을 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수들, 유소년에 야구 스킬 전수

박준표·문경찬·박찬호, 10개 구단 ‘빛을 나누는 날’ 행사 참가

KIA 타이거즈의 박준표, 문경찬, 박찬호가 2019 유소년 야구 클리닉 일일 강사로 나선다.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 선수 30명이 12월 3일 서울 KBS 아레나에서 2019 유소년야구클리닉 ‘빛을 나누는 날’ 행사에 참가해 유소년 선수들을 만난다. ‘빛을 나누는 날’은 야구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프로야구선수 협회와 (주)에이치아이씨가 주최·주관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KIA 박준표, 문경찬, 박찬호 등 30명의 선수가 동참한다. 참가선수들은 재능 기부하며 유소년 선수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참가선수 명단 ▲KIA : 문경찬 박찬호 박준표 ▲두산 : 이형범 함덕주 최원준 ▲KT : 심우준 김민혁 김민 ▲기움 : 김상수 최원대 주효상 ▲SK : 정현 이현석 한동민 ▲삼성 : 원태인 김현곤 김도환 ▲LG : 고우석 정우영 한성태 ▲한화 : 박상원 이동훈 정은원



박준표 박찬호 ▲NC : 강윤구 김찬형 김형준 ▲롯데 : 이대호 민병현 정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정용 감독 프로축구서 새 출발

K리그2 서울 이랜드 FC 감독 선임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지휘한 정정용(50) 감독이 프로팀 지도자로 새 출발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정정용 감독이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 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이랜드도 정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며, 다음 달 5일 취임식을 연다고 발표했다. 정 감독은 2006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활동하며 U-14 팀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지도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키워온 지도자다. 2014년엔 고향 팀인 대구 FC의 수석코치를 지내며 구단의 U-18 팀인 현풍고 감독을 맡는 등 육성 전문가로 경력을 두루 쌓았다. 올해 여름 폴란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에서는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 한국 남자 축구 사상 FIFA 주관 대회 최고 성적을 거두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이후 9월부터는 U-20 대표팀 전담 계약을 맺고

U-18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본선 진출을 이뤘다. 축구협회는 “정 감독이 U-20 월드컵 이후 다수 클럽의 구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인과 유소년 대표팀의 가교 구실을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고사해 왔다”면서 “계속된 이랜드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응적 차원, 그리고 정 감독의 발전을 위해 승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5년 창단해 2부리그에서 시작한 서울 이랜드는 현재 4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으나 이후 2016년 6위, 2017년 8위로 점차 하락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 최하위인 10위에 그쳤다. 서울 이랜드는 “명문 구단으로의 도약을 위한 리빌딩 적임자”라며 정 감독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정 감독은 1992년 실업축구 이랜드 푸마 축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인연도 있다. 정 감독은 “프로 도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팀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10여년간 값진 기회와 많은 지원, 다양한 배려를 해준 협회에 감사하다. 지도자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챔스리그 3호골 ... 황희찬 존재감 ‘뽀뽀’

잘츠부르크, 헝크에 4-1 승
내달 11일 리버풀과 조별리그 최종전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잡이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황희찬은 28일 오전(한국시간) 벨기에 헝크의 KRC 헝크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시즌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헝크(벨기에)를 상대로 올 시즌 8호, 유럽 챔피언스리그(UCL) 3호 골을 터뜨렸다. 이날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는 헝크를 4-1로 눌렀다. 황희찬은 4-4-2 포메이션에서 왼쪽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 파튼슨 다카와 투톱으로 그라운드에 나섰다. 선제골이 터진 건 전반 43분. 잘츠부르크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찼으나 수비벽에 막혔고, 재차 시도한 슈팅마저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선방에 막힌 공이 정면으로 튀어나오자 다카가 달려들어 공을 골대로 꽂아넣었다. 황희찬에게도 기회가 왔다. 후반 24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공을 넘겨받은 홀란드를 보고 황희찬은 골 지역 앞으로 달려가 자리를 잡았다. 홀란드가 수비수 사이로 낮게 패스하자 황희찬은 가벼운 오른발 슈팅으로 공을 밀어넣었다. 헝크는 후반 40분 음와나 사마타가 골키퍼에 두차례 연속으로 마쳐 튕겨나온 공을 재차 슈팅해 만회골을 넣었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뒤였다. 잘츠부르크는 2분여 뒤인 후반 42분 홀란드가 쉐기골까지 챙기면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경기가 황희찬은 올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3골 3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8일 1차전에서 헝크와 맞붙으며 1골 2도움을 기록했고, 10월 3일 2차전에서 리버풀(잉글랜드)을 상대로 1골 1도움으로 활약했다. 황희찬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은 건 이



잘츠부르크 황희찬이 27일(현지시간) 벨기에 헝크에서 열린 헝크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경기에서 드리블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번 시즌이 처음이다. 잘츠부르크 역시 2000년대 들어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6년 연속으로 우승을 거머쥐며 2010년대 최다 우승팀으로 군림한 강팀이다. 2승 1무 2패로 승점 7점을 챙긴 잘츠부르크는 리버풀(3승 1무 1패, 승점 10), 니폴리(이탈리아-2승 3무, 승점 9)를 앞서는 조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경기는 다음 달 11일 리버풀과 조별리그 최종전 홈 경기. 잘츠부르크는 10월 리버풀과 2차전 원정 경기 당시 접전 끝에 3-4로 패한 적이 있다. 잘츠부르크는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